

###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전남 4개소 선정

# 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국비 214억 등 총 306억 투입  
보성·무안·강진·진도 선정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도모



여수국가산단 아름다운거리.

/전남도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인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에 보성 미령,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농공단지가 선정돼 국비 2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 추진한 '농공단지 패키지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사업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4개 핵심사업을 패키지화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연계 지원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여 원, 도비 27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91억여 원 등 총 306억 원이 투입된다.

보성 미령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무안 일로는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 강진 마량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진도 고군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열악한 농공단지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 및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타 산업단지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리기본계획이 미

수립된 농공단지(28개소) 시군에 대해 향후 농공단지 입주 및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현재 64개소 중 59개소의 수립 완료하는 등 행정적 절차 이행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암 대불 국가산단 등 11개소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여수 국가산단 등 4개소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문화·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양승주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서울교육청, 남녀공학 전환학교 지원 확대

서울 중·고등학교 34% 단성학교  
공학 개편시 시설 개선사업비 등 지원

아울러 공학으로 전환하며 학생 생활지도 등 학생 상담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항목도 신설해 3년간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성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운영비 6억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양성평등 교육 실현 등의 요구가 커지며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 서울에 위치한 전체 중·고등학교 708교 중 단성 학교 비율은 241교로 34%를 차지한다. 전체 중학교 390교 중 단성 중학교 수는 90교(23.1%)이며, 전체 고등학교 318교 중 단성 고등학교 수는 151교(47.5%)이다.

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시설 개선사업비 ▲교육과정 운영비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인건비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한다.

시설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는 3년간 6억원 투입된다.

이처럼 교육청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단성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학교별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돼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 하는 학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양성평등교육 실현과 학생 생활지도의 교육적 효과, 지역별·학교별 선호·비선호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현진 기자 ihj@

## 경북도, 2034년까지 벤처투자펀드 1조 조성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넓혀  
혁신기술 창업·연구개발 지원

경북도가 2034년까지 1조원 이상의 '경북G-스타펀드'를 조성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경북도가 출자하는 모든 벤처투자펀드로, 도내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자 추진된다. 2028년까지 5000억 원 이상, 2034년까지 1조 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125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G-스타밸리'(포항벤처밸리, 경산임당유니콘파크, 구미스타필드 등 경북 혁신벤처기업 단지)의 혁신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

형 투자를 지원한다.

경북도가 60억 원을 공동 출자한 2개 펀드는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정시 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됐다.

선정된 펀드는 대경기술지주&와이앤아처(펀드주관운용사)가 신청한 '지역창업초기펀드'와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혁신벤처펀드'다.

이들은 모태펀드 209억원을 포함한 359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모태펀드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투자 의사결정은 전문기관 한국벤처투자 담당한다.

경북과 전남이 연합으로 신청한 지역 혁신벤처펀드는 모태펀드 179억원과 함께 모펀드(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 299억원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 다시 9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960억원 정도가 결성돼 경북도의 올해 목표 1250억원의 77%가 달성됐다.

현재 경북도는 6개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1555억 원을 조성한 상태로 경북 혁신 벤처기업 139개 사에 672억 원을 투자했다.

경북도는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기반 구축, 연구 개발 및 글로벌 진출 등 생애주기에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G-스타 펀드 조성 목표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해 혁신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서울시, 올해 '전기 오토바이' 1052대 보급

배달용 보조금 10% 추가지원

정된다.

서울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고, 배달용은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과 주박가 소음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이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약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보급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대상  
무료 맞춤형 상담, 개선방안 제안

서울시가 50인 미만 산재 취약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감소대책을 수립·실천하는 안전보건 과정이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

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복지서비스 ▲건물관리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이다. 올해는 최근 3년 간 서울지역 사고 재해율이 가장 높은 음식·숙박업 중 위험요인이 많은 '음식업'이 추가됐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4월 2일 (화)  
음력: 2월 24일

수도권 날씨  
8 ~ 2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3/23, 동두천 4/23, 가평 3/23, 파주 3/22, 서울 8/23, 양평 5/23, 수원 9/22, 용인 9/22, 평택 5/23, 백령도 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ISIS-K, 모스크바 이어 유럽 노린다...파리올림픽 공격할 수도"  
▲나토, 이번주 외교장관회의 개최...韓 3년 연속 참석 /사진 뉴시스

▲'축출 위기' 美공화 하원의장...민주당이 동아줄?  
▲킨타나 전 아르헨 의원 "김치 사회적 가치 반영해 기념일로"



▲한중 청년에게 정책 제언 듣는다...2회 후호증진단 본격 활동  
▲금값, 또 최고치 경신...美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사진 뉴시스